



주 제:	“두려워하지 마라”	“연중 제 12 주일”	2008년 6월 22일
복음 묵상:	[마태 10,26-33]	[예레 20,10-13]	[로마 5,12-15]

오늘 연중 제 12 주일의 복음말씀은 지난주일 복음의 계속입니다. 지난주일, 길 잃은 양들에게,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곳으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파견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용기와 각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은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는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하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살아가면서 늘 겪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위해 파견 받는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에 겪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늘 박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복음이 거절당하고 박해받는다고 해서 '복음의 운명'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컷속말로 들은 것까지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란 남이 못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한 바를 죽을 때까지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어려움을 뚫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영광을 우리 가슴엔 품지 못하더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버리지 않고 신앙을 갈고 닦으며, 새로 또 시작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무서울 것 없습니다. 아멘. (은하수 성당 안상일(요셉)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그 동안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최효훈 토마스 형제님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6/25 일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영구 귀국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를 위하여 부어주신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멀리 떠나시더라도 주님의 사랑안에 하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학순 로사 자매님, 따님 이사관제로 LA 에 가십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가대를 위해 활약해 주신 로사 자매님께 감사드리며, 어디서나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 지난 주말에 메스터 코랄 합창단 공연에서 활약하신 김 세실리아 지휘자님이 많은 성가대 가족들이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성심 성가단을 보다 더 질적으로 높이는데 헌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 6/15 일 오후 2시 San Francisco 에서 공연으로 많은 단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공연을 잘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
- 최일해 다니엘 형제님, 사업차 7월 2일 일주일의 짧은 여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 이현아 베로니카 자매님, 7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 최상진 엘리사벳 자매님 을프레아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
-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네델란드 출장 무사히 잘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주님께 감사.
- 김 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알림

6/29(일) 성가대에서 몬트레이 공소를 방문합니다. 지난 주에 15 명이 접수되어 마감하여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벤이 두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카타리나 자매님과 강 세실리아 자매님의 벤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반기 임원 회의 소집

2008 년 하반기 성심 성가대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회의를 소집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2008 년 6 월 22 일(교중 미사후) 성가 연습실**

참석자; 지휘자, 반주자, 각 임원, 각파트 장 및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사람.

의제; 1. 성가대 피정 (9 월 27 일 예정), 2. CD 제작건, 3. 성가대 복 4. 공소 방문
5. 기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 복음 [마태 10,26-33]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단돈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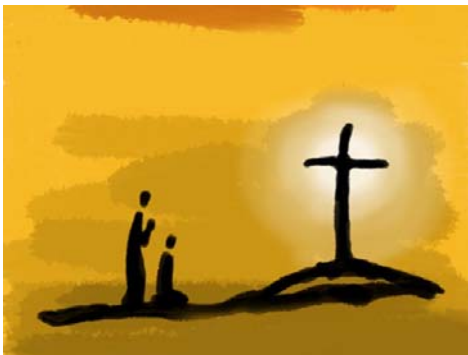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1분 명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함"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명백한 빛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많은 묵상, 적절한 토의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떠오를때
그것이 당신의 뜻인지 아닌지 찾고자 노력하지
않고 얼마나 자주 충동적으로 움직이는지요,
작은일에서도 제가 주의 깊게 당신의 뜻을
찾을수록 당신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 찾을때
당신께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인지 모릅니다.